

광주 역사문화유산 활용...국내 첫 예술특구 만들어야

아시아 예술특구 AI시대 생존방식

(1) 프롤로그

문화예술 경쟁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광주는 그와 관련해 내로라할만한 공간 구축이 모자란다.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나라와 도시 등에서는 광주와는 달리 대처방식과 대응 방향, 미래 비전 방안 등을 탐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굴뚝없는 산업의 한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이 특구 내에서 어떻게 상품화되고 소통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가 등 그 양상까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예술특구가 함의하는 담론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장소성과 콘텐츠다.

광주는 일단 예술특구로 규정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데다 장소가 없으니 콘텐츠 역시 논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처지다. 예술특구에 걸맞은 장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래에는 전남·일선방직 공장부지가 꼽혔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폐공장지대 내 건축물 혹은 공물이나 양반가옥, 일제 치하 적산가옥, 근현대 역사적 건축물 등이 후보지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터다. 그러나 현재 광주는 예술의거리는 있으나 이미 전세계적으로 명

예술계, 방직공장 반면교사 삼아 다른 공간 물색을 국내외 아트명소 사례 탐색...미래 경쟁력 확보 모색
중국 798·대만 보얼예술특구 조망 문화 현주소 진단

성이 자자하고 핫플이 된 예술특구는 부제하다. 예술특구를 무조건 조성해달라기보다는 가장 근접한 지점들을 물색해 제안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AI문화시대, 아시아예술특구의 생존방식'에서는 이런 점들을 우선 조망하고자 한다. 먼저 충분히 모델로 삼을만한 광주의 공간들을 탐색하고, 예술블러이 아니라면 단일 공간으로 그런 기능을 해내고 있는 지점들을 조명하는 동시에 여기서 참조할 만한 내용을 추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예술특구는 도시의 영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들 예술특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지점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일궈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적용 가치가 있다. 없나를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자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현시대 인구급감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및 SNS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도시 간 색깔이 오

히려 획일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 도시만의 색깔과 개성을 담아내지 않으면 똑같은 축제같은 '닭은 꼬' 형태의 프로그램만 반복하게 된다. 이는 각 도시가 품고 있는 근현대문화공간과 산업유산공간이 해당도시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어서 반드시 도심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꾀해 보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예술특구에 대한 조망이 필수적이다.

각 도시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더 이상 문화유산이나 산업유산을 해체하지 않고 도심 재생을 통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의 경우 복합쇼핑몰을 내세워 근대산업유산인 전남방직과 일산방직 공장건축물들은 기숙사 등 근소수만 남기고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예술특구로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기도 한 안타까움은 더한다. ▶2면으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시모판의 치바스 바에 베르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한민

태극전사들, 월드컵서 최고 성적 쏜다

오늘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역대 첫 원정 8강 도전
19일 멕시코·25일 남아공전...48개국 확대·새 규정도

한 시간 안에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면 공격권이 상대 팀으로 넘어간다.

선수 교체 규정도 강화됐다. 교체 지시 후 10초 안에 교체되는 선수가 터치라인 밖으로 나와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교체 투입 선수는 경기 재개 후 1분이 지나거나 경기가 중단될 때까지 그라운드에 들어올 수 없다.

부상 치료를 받은 선수는 경기 재개 후 1분 동안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비디오판독(VAR)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된다. 명백히 잘못된 코너킥 판정과 두 번째 경고에 따른 퇴장 상황도 VAR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새로운 징계 규정 또한 도입된다. 상대 선수와 충돌 상황에서 입을 가리고 발언하는 행위에 대해 심판은 퇴장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회 규모는 커졌고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치열한 월드컵이 시작된다. 태극전사들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12일 막을 올린다. 태극전사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원정 역대 최고의 성적을 노린다는 각오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한다. ▶관련기사 16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첫 월드컵이다. 참가국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다. 경기 수 역시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났다.

조별리그는 4개국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조 1·2위 24개 팀과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A조로 편성됐다. 체코전 이후 19일 멕시코, 25일 남아공과 32강 자리를 놓고 다툰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에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2010 남아공월드컵 원정 첫 16강 진출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원정 8강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참가국 확대와 토너먼트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경기 방식과 규정에서도 큰 변화가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간 끌기 방지 규정이다. 심판이 고의적인 지연 행위를 판단할 경우 스로인과 골킥 상황에서 5초 카운트다운을 실시한다. 제

엠코코리아 대규모 투자 검토...광주 반도체산업 '청신호'

1조원 규모...첨단산업 내 반도체 후공정 공장 증설 추진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글로벌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코리아가 광주사업장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코코리아는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규 공장 증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획안에는 광주공장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설 규모는

공장동 6개 수준으로 알려지며, 2035년까지 단계적인 사업장 확장과 추가 투자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세와 함께 주요 고객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을 투자 검토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수주 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엠코코리아는 국내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광주에 본사와 핵심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광주 공장은 회사 전체 생산량의 절반기량을 담

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광주사업장에는 약 4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단일 제조사업장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투자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1000명 안팎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후공정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초록빛 장성에서 만나는 힐링 심포



성장
Jangseong

축령산



남창계곡



장성호 수변길

여행은 장성으로